

## 문화 심리학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접근

구자숙\*

심리학에서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던 문화의 개념이 최근 들어 문화 심리학적 접근을 취하는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다. 문화 심리학의 대전제는 문화와 정신(Psyche)이 서로를 상호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문화라는 집합적인 현실이 어떻게 사회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현실이 되어,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시 개인적인 행위가 어떻게 개인적 현실과 사회 심리적 과정들, 집합적인 현실을 유지, 지속시키고 변형시키는지의 과정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1) 실험적 전통과 방법론적 엄격성, 보편성의 추구를 지향해 온 사회 심리학에서도 “의미”的 탐색이 과학적 방법론 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라는 점과, (2) 어떤 현상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원인을 밝히려면 그 현상이나 행동을 문화적, 사회 구조적, 사회 역사적인 맥락 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접근의 예로서 (1) 각 문화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자기의 구조가 달라지고, 이에따라 사람들의 심리적인 과정과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경험이 달라지게 된다는 연구들과 (2) 미국 남부의 폭력성을 특수한 경제적인 환경의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명예의 문화로 설명하는 연구들, 그리고 (3) 사회 현상을 문화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시각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을 기술하였다.

---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전공분야: 사회심리학

주요논문: "Politeness: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Koo, J., Ambaby, N., Lee, F., and Rosenthal, R. (1996), "More than Words: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Politeness in Two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5.

연락처: 전화: 0331-261-8481

e-mail: suinhan@chollian.net

## 1. 서론

“시간, 장소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 본 적도 없고 그 성질상 존재했을 수도 없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개인이 된다는 것이며, 개인이 되는 것은 … 문화적인 패턴과 역사적으로 형성된 의미체계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진다.”

C. Geertz, 1973

근대의 사회과학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무렵 약 1세기 전부터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여 강조되어져 왔던 생각은 인간의 정신은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Asch, 1952; Baldwin, 1897, 1911; Jahoda, 1993; Le Bon, 1894, 1895; Mead, 1934; McDougall, 1908; Wundt, 1916). Mead(1934)는 자기(self)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사회적 경험에서 생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마음은 사회적 환경이 없으면 표현이 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으며,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조직화된 패턴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Asch(1952) 또한 사회적 경험이 없는 개인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였다. 개인이 인간이라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맥락을 통해 큰 변화를 겪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찍부터 사회적인 맥락과 환경이 인간 정신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문화는 심리학 이론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Jahoda, 1990, 1993). 심리학이 문화적인 접근을 회피해온 것은 심리학이 실증주의적인 학문으로 제창되면서 객관성과 보편성(universality)이 강조되어졌기 때문이다. 인간 행동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토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리학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시간과 역사적인 맥락에 걸쳐 변하지 않는 행동의 법칙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가정되어져 왔던 것이다(Miller, in press).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일단의 사회 심리학자들이 문화가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구성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문화의 개념이 심리학 이론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Fiske, Kitayama, Markus and Nisbett, in press; Markus and Kitayama, 1991b; Miller, in press; Pepitone and Triandis, 1987). Bruner(1990)는 문화가 심리

학에서 중심적인 개념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인간이 문화에 참여하고 문화를 통해 자신의 정신능력을 구현하므로 인간의 심리를 개인 혼자만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개인의 심리는 문화에 젖어 들어 있으므로 심리학은 인간을 문화에 연결시키는 의미창출과 의미사용의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들은 민속 심리학(folk psychology)을 사용하여 예측을 하고 서로를 평가하는 등의 일상적 활동을 하는데, 민속 심리학이란 바로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화의 설명이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들을 경험하는 것도 민속 심리학적인 범주들임을 생각할 때, 행동에 대한 설명에서 민속 심리학과 문화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심리학이 설명해야하는 바로 그 현상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접근에서는 심리적인 과정과 구조들이 문화적인 의미와 관습들에 의하여 패턴화되며, 또한 의미와 관습들은 특정한 인간 사회라는 맥락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Shweder(1990)가 “문화와 정신(psyche)은 서로를 구성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며, 문화 심리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이다. 문화적인 관습과 의미들은 심리적 과정을 완성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일단 형성된 심리적 과정들은 문화적 관습과 의미들을 변형시키고 생성한다. 다시 말해 심리적인 과정들은 각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형성되고 유지된다. 정신은 사회 문화적, 역사적으로 구성된 환경의 함수이다. 이렇게 발달된 심리적 과정들은 그 과정들이 유출된 문화적 체계를 유지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Bruner, 1990; Cole, 1991; Greenfield and Cocking, 1994; Miller, in press; Shweder, 1991, 1995; Wertsch, del Rio and Alvarez, 1995).

지금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 심리학은 이제까지의 일반 심리학과는 다른 학문체계이다(Shweder, 1995). 일반 심리학은 인류의 심리적 단일성의 원칙을 가정하고, 인간에게는 보편적이고 내재적인 심리적 구조와 과정들이 있어서 이는 외재적인 환경과 조건들로부터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문화 심리학은 어떤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경이나 맥락을 보편성을 가리우는 장애물로 취급하지 말고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나오는 다양성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 심리학은 1960년대의 “인지적 혁명”이 인간에 대한 적절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자성의 목소리이다(Bruner, 1990). 인지적 혁명은 극단적인

행동주의에 반대하여 심리학에 마음을 다시 가져오려는 시도였으나, 놀라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오히려 심리학의 비인간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시초에 인류학, 언어학, 철학, 역사학 등의 인문 및 사회과학의 분야들과 합세하여 인간이 세상과 자신을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발견하고 기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그 강조점이 곧 “의미”에서 “정보”로 “의미의 구성”에서 “정보처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체계 내에서는 믿음, 욕망, 의도, 의미획득과 같은 의도적인 상태에서의 “마음”이 설자리가 없으며 그 결과 심리학을 다른 인문과학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였다. 문화 심리학은 또한 비교문화 심리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이기도 하고(Cole, 1995),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인류학쪽에서의 바램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Shweder and Bourne, 1984; Greenfield, in press).

## 2. 문화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Shweder(1990)는 문화 심리학이란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관습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조절하고 표현하고 변형시키고 바꾸어서, 인류의 심리적 단일성보다는 마음, 자기(self), 감정(emotion)에서의 인종적 다양성을 초래하는 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를 보면 문화 심리학이 지향하는 바를 암시 받을 수 있다.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관습”은 보통 인류학의 주제였으며 심리학에서는 인간 내부의 중앙처리기제 혹은 하드웨어를 가리는 표면적인 차이, 외부적인 맥락, 더 나아가서는 소음이라고도 취급되어졌다. 문화 심리학에서는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고(Geertz, 1973)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은 정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어떻게”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 심리학에서는 과정(process)에 관심을 둔다. 심리학에서는 원인과 결과, 자극과 반응의 그 내용에 주로 관심을 두어왔는데 문화 심리학에서는 원인이나 자극 변인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문화적 과정을 직접 연구한다. “심리적 단일성 보다는 다양성”에서는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들이 있어서 다양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형성해 낸다는 가정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심리학에서의 관점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후근대적인 이해이다. 이는 인간의 실존적 불확실성과 세상은 절대적인 현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이라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문화 사회적인 환경으로부터 의미와 자원을 추출해 내려고 한다(Shweder, 1995). 또한 이 사회 문화적인 환경은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여 그들의 신념, 욕망, 감정, 정신적 표상, 목적 등에 의하여 유지되고 영향받는 한에서만 실제하게 된다. 우리 인간은 모두 의미를 창출하는 존재(meaning maker)들인데 의미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적 체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특정한 사회 문화적 세계로 들어가야 하며 혼자서는 의미를 창출할 수가 없다. 문화적 반향(cultural resonance)이 필요한 것이다. 행동을 이해하려면 문화적인 요소가 없이는 불완전한 분석이 되며, 의미창출의 열쇠가 되는 가치관, 생각, 사회적 관습, 문화를 이해해야만 한다.

### 3. 문화 심리학에서의 이론적인 이슈: 보편성(universality)의 문제

Bruner(1990)는 심리학이 그 설명의 체계에서 더 이상 “의미로부터 자유로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리학의 연구대상인 사람들과 문화들이 바로 공유된 의미와 가치관들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체계가 문화와 언어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고 그 개인이 속한 커뮤니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편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문화마다의 다양성만이 존재하는 것인가? 문화 심리학자들은 이 보편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Bruner(1990)는 소위 인간 본성의 보편성이라 불리는 생물학적인 토대는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제약이나 조건을 제공해 주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인간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문화와 문화적인 틀 내에서의 의미추구이다. 연구되어져야 하는 것도 생물학적인 인간 본성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 위치한 의도적인 행위(action)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 심리학이 보편성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확실하고 우유부단한 상대주의(relativism)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문화 심리학적 입장은 개인이 다양한 현실, 다양한 시각에 접했을 때 자신의 시각이 전제하는 가정들에 의문을 던져보고 그 시각을 고수할 것인가를 탐색하도록 해준다. Bruner는 지적인 능력으로 그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흑인이 백인보다

지적인 능력이 열등하다면 이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학교에서의 수행이 무엇을 의미하며 다른 종류의 수행과는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지적인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곧 그 정의 자체가 문화가 어떤 특성을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고, 보상을 주며, 배양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못가진 자의 자녀들에 비해 가진 자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선택됨으로써 학교에서의 수행 자체가 공평하지 못한 능력의 측정법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생길 것이다. 문화 심리학은 열린 마음을(open-mindedness) 가지는 것에 관련된 것이고, 열린 마음이란 자신의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다중적인 시각으로부터 지식과 가치를 해석하려는 자세라고 한다.

상대주의적인 시각은 문화가 서로 비교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각 문화가 가지는 독특한 측면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Geertz, 1983, 1984; Gergen, 1993; Gergen and Davis, 1985; Schneider, 1984). 보편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관심의 대상도 아니다(Shweder, 1990). 연구자 자신의 문화에서 사용되는 개념, 범주, 문화적 전제들을 다른 문화에 적용시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동화시키는 자문화 중심적 접근을 지향하고 각 문화를 그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과연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Geertz(1984)는 그 사람이 되어보아야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문화를 알고 기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Harre and Krausz, 1996). 후근대성 이론가들은 다른 문화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기술은 탐색의 주관적인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채택하기도 한다(Fiske, Kitayama, Markus and Nisbett, in press). 상대주의적인 접근이 대부분 인류학자들에 의하여 취해지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회 심리학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은 보편성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일 수밖에 없다. 가장 급진주의적인 문화 심리학자인 Shweder도 보다 최근에 와서는 완전한 상대주의론에서 “하나의 마음, 다양한 정신양식(one mind, many mentalities)쪽으로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LeVine and Shweder, 1995). 하나의 마음이란 문화적인 학습을 위한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며, 다양한 정신양식이란 독특한 생태적, 경제적 조건을 가진 서로 다른 문화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정신의 변화(variability)를 의미한

다. Greenfield(*in press*)는 보편적인 심리적 과정과 변하지 않는 행동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보편적인 과정과 법칙들이 문화 심리학의 방법론과 이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동을 문화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한다던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심리적인 과정의 지표로만 이해한다던가 하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해서는 안되며, 모든 행동은 동시에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고 본다. 문화적 맥락 내에서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주요한 행동의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행동이 문화적 맥락 내에서 가지는 의미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인간과 행동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했었는데, 만일 문화 심리학에서 행동이 나타내는 보편적인 법칙을 무시해 버린다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일 것이다. Pepitone과 Triandis(1987)는 생물학적인 토대에서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보편성은 문화적인 의미들과 관습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보편성은 각기 다른 문화에서 강조되는 의미체계나 관습을 반영하게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Miller(*in press*)는 문화 심리학 내에 지엽적인 성격의 설명뿐 아니라 보편적인 형태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기술한다. 문화 심리학에서의 접근은 본질주의자의 시각도 혹은 백과사전 식의 시각도 아니고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White, 1963). 즉 한가지 유형의 설명만이 언제나 절대적인 의미에서 더 선호되어서는 안되고, 특정 문제의 이론적 성질에 따라, 그 문제에 가장 성공적인 해답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형태의 설명이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Wertsch, 1995). Miller(*in press*)는 보편적인 형태의 설명을 할 때에는 자문화 중심주의, 환원주의 등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즉,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을 다른 문화권에 적용시킴으로써 특정한 문화집단의 관점을 왜곡해서는 안되고, 문화적 기원을 가지지 않는 보편적인 특성으로 관심 행동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환원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설명은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주어져서는 안되고, 충분히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서 경험적인 증거로 그 설명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접근을 취하여 지엽적인 설명을 할 때에는 특정한 문화집단 내에서만 혹은 특정 문화적 맥락이나 역사적 시점에서만 작용하는 심리적 기능을 특징지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적 특수성을 지니는 감정들(Kitayama and Markus, 1994), 도덕적 코

드(Miller, 1994b; Shweder, Mahaphattra and Miller, 1990), 성격 발달의 유형(Roland, 1988; Rosenberger, 1992), 귀인 과정(Markus and Kitayama, 1991a)을 다룬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설명의 형태를 대표하는 연구들이다(Miller, in press).

#### 4. 문화 심리학에서의 방법론

새로운 학문체계는 기존의 학문체계와는 다른 연구문제를 가지게 되고, 그 개념적 틀 안에서 원래의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문화 심리학의 경우에는 인간의 문화적 과정에 대한 사회 역사적인 근원을 밝혀주면서 문화적 행위와 상호작용, 즉 문화적 과정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이 확립되어져야 한다. 문화 심리학과 비교문화 심리학은 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대상에서 서로 다른 체계이지만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그 방법론들은 경쟁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Miller, in press). 문화 심리학적 연구와 비교문화 심리학적 연구를 구분해 주는 것은 각기 다른 방법론의 사용이라기 보다는 그 연구가 가정하는 이론적인 전제에서의 차이이다. 실제로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문화 심리학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기존의 비교문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경험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있으며(예를 들어 Markus and Kitayama, 1991a), 단일한 문화를 해석적인 민족지학적 기법들을(ethnographic techniques) 사용하여 분석하지만 비교문화 심리학의 전통에 속하는 연구들이 있다(예를 들어 Spiro, 1982). 하지만 이론적 전제가 달라짐에 따라서 각 전통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정의하는 방법론에도 차이가 있다(Greenfield, in press).

첫째로, 비교문화 심리학은 각기 다른 문화권의 집단간 차이에 주목하지만 아직도 정신 생활의 단일성과 보편성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한다(Shweder, 1995). 즉 심리학 이론들의 일반성을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검사해 보고, 기존의 이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차이를 밝혀내어 이를 통합시킴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심리학을 창출하려는 것이 그 목표이다. 따라서 비교문화 심리학에서의 방법론적인 이상은 한 문화에서 잘 확립된 절차를 다른 문화들에 적용을 시켜서 문화간 비교를 하는 것이다(Berry, Poortinga, Segall and Dasen, 1992). 이와 대조적으로 문화 심리학에서의 방법론적인 이상은 그 문화의 생활양식과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으

로부터 절차를 유도해 내는 것이다. 이때에는 각 문화에서 사용되는 연구의 절차가 달라진다. 문화간 비교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분화된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이차적인 문제이다.

둘째로, 비교문화 심리학에서는 연구문제와 절차를 이미 잘 확립된 심리학적 방법론에서 유도해 내지만 문화 심리학은 이를 문화에 대한 분석에서 유도해 낸다.

셋째로, 비교문화 심리학에서 문화는 개인의 행동이라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개념화되고 문화와 심리학은 서로 구분이 되지않는 현상으로 받아들여 진다(Berry, 1976; Eckensberger, 1979). 문화 심리학은 문화와 심리가 상호적으로 구성하는 현상이며, 독립적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가정하고(Berry, 1983), 문화적 체계 내에서 변인들은 원인과 결과로 깨끗하게 나누어지기 어려우며 많은 경우에 변인들은 동시에 원인으로도 결과로도 작용할 수 있다(Greenfield, Brannon and Lohr, 1994). 그러므로 문화 심리학에서는 문화가 독립 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연구대상이다.

Greenfield(*in press*)는 종속변인의 측정은 연속적인 양적 척도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개인적인 문화적 과정에 대한 분석은 질적인 과정분석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자신들의 연구를(Greenfield, Raeff and Quiroz, *in press*) 예로 들었다. 이 예가 양적인 척도의 사용과 질적인 과정분석을 잘 구분해 주고 있다. 이 연구자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온 라틴계 가족들이 경험하는 실생활에서의 가치관 갈등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애나와 크리스티나는 삼촌으로부터 각각 10달러 씩을 받았다. 크리스티나는 블라우스를 샀다. 일주일 후 애나가 크리스티나의 블라우스를 입고싶어 하는데 크리스티나는 이것은 내 블라우스이며 나는 내 돈으로 이것을 산 것이라고 말한다. 애나는 “하지만 네가 지금 이것을 입을 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한다. 크리스티나는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한다.

피험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엄마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라틴계 엄마들은 흔히 집단주의적인 응답을(애나에게 블라우스를 빌려 주어라) 한다. 한편 그 아이들은 가족 내에서의 집단주의적인 방향성을 학교에서 접하는 개인

주의적인 방향성과 절충시키고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한 4학년 소녀의 대답은 엄마가 애나로 하여금 크리스티나에게 돈을 지불하게 하고 그러면 크리스티나는 또 다른 블라우스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질적인 과정 분석에서는 이는 개인주의적인 사유재산의 개념과 가족 구성원들과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집단주의적인 개념을 통합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료에 대하여 양적인 접근을 위한다면 이 응답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간격척도에서 중간쯤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그 아이가 문화간 가치관 통합을 이루어냈다는 심리적인 과정의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한다(Greenfield, in press).

비교문화 심리학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문화간 비교이고, 비교를 위해서는 각 문화에서의 관심 현상을 양적으로 나타내어 통계적인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제되는 것은 비교되는 현상이 각 문화마다 동일하다는 점이고, 연구자들은 비교가능한 측정치를 얻기 위하여 절차를 표준화하기도 하고 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알맞게끔 변형을 시키기도 한다. 문화 심리학에서는 그 현상들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Stigler, Shweder and Herdt, 1990), 서로 다른 현상들을 동일한 측정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그 문화에 적합한 방법으로 현상을 연구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현상이 문화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될 수도 있다. 문화간 비교나 보편성에 대한 검사는 보다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행동의 비교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간 비교가 가능한 방법을 써서 양적인 측정을 할 때보다는 문화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 이론적인 수준에서 비교를 할 때에 보편적인 과정들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Greenfield, in press).

문화 심리학에서는 양적인 측정과 함께 질적인 분석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Greenfield(in press)는 질적인 분석이 양적인 분석에 선행되어야 하고 양적인 분석을 계획하는데에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무엇을 관찰하여야 하는지, 관심 현상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적인 분석이 선행했을 경우, 양적인 분석만이 이루어졌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맥락 내에서의 행동만이 그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 민족지학적인 방법이나 관찰방법 —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실 연구에 선행되어야 한다(Berry, 1980).

사회 심리학 내에서의 문화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비교문화 심리학적 방법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예를 들어 Bond, 1988; Cousins, 1989, Markus *et al.*, in press; Morris and Peng, 1994 등). 이 사실은 그 연구들이 주요 사회 심리학 학술지에 실렸다는 사실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과학적인 전통 내에서 객관성이 강조되고 양적인 측정이 과학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질적인 분석은 기피된다. 믿음, 욕망, 의도와 같은 주관적인 상태나 과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연구가 변인 위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문화 심리학이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맥락 내의 주관적인 현실에서의 경험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양적인 분석만으로 주관성과 의미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질적인 분석이 병행된다면 새로운 학문 체계로서의 문화 심리학이 일반 심리학의 틀 내에서의 비교문화 심리학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문화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에 큰 기여를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심리학에서 여러 학제와 연구의 전통에서 이끌어져 나온 방법론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Miller, 1994a). 한가지 방법만을 고수하거나 한가지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예를 들어 해석적 기법이 비교적인 혹은 실험적인 방법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각 방법론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하다거나 유용하다고 하는 결정은 연구 질문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Campbell and Naroll, 1972).

## 5. 문화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접근들: 연구의 예

사회 심리학자들이 문화를 연구할 때에는 상대주의적인 접근보다는 다음의 방략들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대조되는 유형이나 차원들로 문화를 구분하는 것, 각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보편성을 찾는 것(생성 구조), 문화의 중요한 요소 혹은 정서를 나타내는 문화 복합체를 찾는 것, 문화들을 시간적인 연속선 상에서 비교하는 것들이 그것이다(Fiske, Kitayama, Markus and Nisbett, in press). 그 중에서도 사회 심리학자들이 주로 택하는 방략은 서로 대조되는 유형이나 차원들로 문화를 구분하는 것과 문화 복합체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두 가지 접근들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유형적 그리고 차원적 접근 (Typological and Dimensional Approaches)

이 접근에 해당하는 연구들 중에 근래들어 가장 주목을 받는 것들로 구미권 문화들과(European American cultures) 동아시아 문화들(East Asian cultures)을 독립성(independence)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연구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Markus and Kitayama, 1991, 1994). 문화와 자기(self)가 상호의존적으로 구성된다면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사람들의 자기 구성체(self-construal)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서구의 심리학계에는 단일한 자기의 모형만이 제시되어져 왔다. 그 모형에서 보는 자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개인은 성격적 특성, 능력, 재능, 선호, 신념 그리고 태도와 같은 내적이고 사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특징짓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지어 주게 된다. 이러한 내적인 특성들은 각 개인을 자율적이고 자유로이 선택하며 독특한 개인으로서 정의한다. 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이러한 자기 모형이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Markus와 Kitayama(1991)는 이러한 독립적인 자기관점 이외에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점을 제시하는 논문을 쓰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이 논문은 1996년도에 사회 심리학 논문들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었다. 독립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자기모형을 요약해 보자면, 먼저 유럽과 북미의 독립적인 자기 모형에서 자연스럽고, 필요하고, 건강하고, 좋은 특성으로 강조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Fiske, Kitayama, Markus and Nisbett, in press) :

사람은

- 일관적이고, 안정되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실체(entity)이다.
- 선호, 동기, 목표, 태도, 신념, 능력과 같이 자신을 정의해 주는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이야 말로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지도하고, 혹은 제약하는 주된 힘이다.
- 독립적인 “성공”과 “성취”지향적이다.
- 개인적인 목표를 이러한 특성과 지향성 위주로 구성한다.
- 인생을 이렇나 목표의 달성여부에 비추어 평가한다.

- 이러한 목표를 추구할 때에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 개인적인 행동이나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 관계를 개인적인 요구와 상충되는 것으로, 집단 압력을 개인적 목표의 장애물로 본다.
- 최우선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지려고(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동아시아 문화권(중국, 일본, 한국, 동남 아시아) 내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개인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보고 공감, 상호성, 소속성, 인척관계, 위계구조, 충성심, 존경, 공손성 그리고 사회적인 의무 등을 강조한다. 자신을 자유롭게 독립적인 개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관계나, 역학, 규범, 집단 결속 등이 더욱 중요하고, 자신을 실현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에 조화롭게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호의존적인 자기 모형에서 자연스럽고, 필요하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의 특질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 관계, 역할, 집단, 기관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지도하고, 제약하는 주된 힘이다.
- 이러한 사회적인 실체(entity)가 조화롭게 기능하는 것을 지향한다.
- 의무를 다하고 규범에 동조하려고 노력한다.
-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관계와 기관들의 집합적인 요구에 주의를 기울인다.
- 집합적인 요구와 자신이 그 집합적 요구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한다.
- 관계적인 규범에 동조하고 집단 목표를 추구한다.
-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해 그리고 같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상호적인 책임을 진다.
- 규범이나 관계가 개인적인 신념이나 요구에 우선한다.

사회적인 관계나 그 문화의 가치관 등에 근거하여 사회 심리적 과정이나 감정적인 경험 등이 구성되고 영향을 받는다면, 각 문화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자기 성(selfhood)이 달라짐에 따라 개인의 인지적, 감정적, 동기적 경험들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Markus and Kitayama, 1991).

먼저 자기(self)에 대한 기술(description)과 지식이 독립적인 자기 구성체를 가진 문화권과 상호의존적인 자기 구성체를 가진 문화권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30세 이상의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 결과 이들은 자기를 분리될 수 있고, 분석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Herzog, Franks, Markus aand Holmberg, 1995). 이들의 기술은 성격 특성과 역할 범주가 그 주를 이루었으며 그 나머지는 자신의 행위(나는 컴퓨터 회사에서 일한다; 나는 캠핑을 자주 간다)를 기술하는 적이 많았다. 자신을 맥락에 따라 기술하는 일은(일을 할 때는 나는 아주 심각해진다)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기 기술을 하도록 했을 때는(Markus *et al.*, in press) 자신이 독립적이고 범주적인 실체라기보다는 보다 큰 전체에 관계적인 일부로 묘사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Triandis, McCusker and Hui, 1990) 문화를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집단주의적인 문화로 나누었을 때,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에 비하여 자신을 사회적인 집단들, 특히 내집단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향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존감의 경험에서도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북미인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경향성이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었다(Greenwald, 1980; Solomon, Greenberg and Pyszczynski, 1992; Taylor and Brown, 1988). 이러한 자기 서비스적 편파 혹은 자기 고양 현상들이 일본과 다른 아시아의 문화에서는 반복 검증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연구들에서는 자기 고양이 아니라 자기 비판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했다(Heine and Lehman, 1995; Kitayama *et al.*, in press; Takata, 1987). 자신을 기술할 때도 미국인들은 동양권의 응답자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수의 긍정적인 진술문을 사용하였다(Bond and Cheung, 1983; Bond and Smith, 1996; Herzog, *et al.*, 1995). 동양의 자기 보고에서 자기 고양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의 조건에서 자신을 기술할 때도 일본인들은 여전히 자기 고양을 하지 않았으며 자기 비판의 경향성을 보였다(Heine and Lehman, in press; Kitayama, Takagi and Matsumoto, in press). 연구자들은 일본인들은 자기 비판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홀륭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맞추는 방향으로 자신을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상호의존적인 자기로서의 자존감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를 지지하는 증거로서 일본인에게 있어서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특성의 존재가

아니라 부정적인 특성의 부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Kitayama and Karasawa, 1995).

인지적인 측면도 문화권간의 자기 구성체에 있어서의 차이 — 독립적 대 상호의 존적인 — 에 영향을 받는다.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보면 흔히 그 사람의 태도나 성격 특성 혹은 동기와 같은 내적인 특성으로 원인을 돌리는 현상이 발견되었다(Ross, 1977). 심지어는 명백하게 상황적 제약이나 사회적인 원인들이 있었을 때도 그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기질과 같은 내적인 특성으로 돌리는 현상이 발견되었다(Jones, 1979; Gilbert and Malone, 1995). 대응 편향 혹은 기본귀인 오류라고 불리는 이러한 편향은 사람을 내적이고 기질적인 특성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상황적이고 집단의 일부로서의 존재로 기술하는 상호의존적인 자기 구성체를 지닌 아시아권의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로서 Miller(1984)는 타인의 행동으로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가 나타난 경우 미국인들은 이를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설명을 하며, 이에 비해 힌두 인디안들은 사회적 역할, 의무 그리고 다른 상황적인 요인들로 설명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Morris와 Peng(Morris, 1993; Morris and Peng, 1994)은 일련의 살인 사건에 대한 영어 신문과 중국 신문의 설명을 비교하였는데, 미국인들의 설명이 주로 정신 착란과 다른 부정적인 기질들에 집중된 반면 중국인들의 설명은 주로 상황적, 맥락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들로 이루어졌다.

동기적인 측면에서도 문화간의 차이는 나타나는데, 이제까지 서구권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동기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한 가지 동기는 내부적인 동기로서 내적인 욕망이나 흥미 혹은 개인적인 선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동기는 외부적인 동기로서 보상의 추구나 벌의 회피와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다. 미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를 하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안 어린이들은 그 과제가 끝난 후에는 그림 그리기를 그만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어린이들은 과제가 끝난 후에도 그림 그리기를 계속하였다(Lepper and Greene, 1975). 외적인 보상이 내부적인 동기를 감소시킨 것이다. 미국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내부적 동기 때문에 그 과제를 했다던지 혹은 자신이 그 과제를 선택했다는 느낌이 아주 중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행동의 원인으로 지각될 때에는 그 이후의 수행을 계속하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상호의존적인 자기의 관점을 가진 문화에서는 내부적인 동기와 외부적인 동기의 구분이 불명확해 질 수가 있는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중요한 타인에 의해 제공된 행동의 원인은 꼭 외부적인 것이라 단정지을 수가 없다. 또한 독립적인 자기 관점을 전제했을 때는 자신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선택의 자유가 아주 중요해지지만, 상호의존적인 자기 관점에서는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을 했다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Sethi와 Lepper(1997)의 연구에서 미국 어린이들은 자신이 글자 수수께끼의 범주를 선택할 수 없고 자신의 엄마나 같은 반급우들이 선택한 문제를 풀어야 했을 때 내부적인 동기가 감소되었으나, 동양계 어린이들은 엄마나 같은 반급우들이 선택한 문제를 풀 때 내부적인 동기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형론적인 그리고 차원적 접근 방식은 감정적, 인지적, 동기적, 도덕적 측면 등에서 심리적인 기능이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이론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서로 질적으로 다른 심리적 과정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증거들을 제공하였던 것이다(Fiske, Kitayama, Markus and Nisbett, in press). 하지만 이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비교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서 설명이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수준(독립성 대 상호의존성/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한 문화권내의 이질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광범위한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 총체적인 가치나 차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총체적인 가치나 차원들이 그 문화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이 접근에서는 권력과 정치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주의가 덜 기울여졌다는 점인데, 권력이나 정치적인 요인은 문화적 관습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문화적 자산으로의 접근 용이성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Miller, in press).

## 2) 문화 복합체를 찾는 접근

문화 복합체란 관습, 풍습, 기관 혹은 제도, 규범, 신념 혹은 문화적 특성과 같은 것들로서 광범위하게 연구된 문화 복합체의 예로는 작문, 학교, 관료제도, 명예, 계급, 순수성과 오염에 대한 관심, 마법, 무속, 농담, 신성 왕권, 결혼, 인척관계, 통과의례, 선물증정 등이 있다(Fiske, Kitayama, Markus and Nisbett, in press). 그런 복합체

들은 행위의 패턴, 가치관, 관계, 신화 등의 정신을 구성하는 모든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문화 복합체들을 연구하는 목적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화들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복합체들의 유형을 비교하거나 그 복합체가 존재하지 않는 문화와 비교를 함으로써 문화 복합체가 형성된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최근에 문화 복합체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연구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Nisbett의 명예(honor)에 대한 연구들(1993, 1996)일 것이다. 명예는 많은 문화를 특징지우는 사회적, 심리적 핵심체인데, 특히 지중해 연안과 극동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천주교와 이슬람교가 퍼져있는 지역에서도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 지역의 문화들은 서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상기할 만한 공통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문화적 규범, 제도, 그리고 관습들을 포함하는 것들이다(Fiske, Kitayama, Markus and Nisbett, in press) :

- 서로 공유하는 유대관계로 뭉친 부계의 친족 집단들
- 남성의 자율적이며 타인(나이가 더 많은 혈족을 제외한)에 의한 어떤 제약으로부터도 자유스럽다.
- 평판과 모욕에 대한 극단적인 관심: 개인과 집단의 명예와 수치는 주로 그 공동체가 그 개인이나 집단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 특히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 소규모의 친족집단 밖에서는 자기주장적이고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다른 사람을 모두 불신하고 기만 혹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친족, 일가, 동지, 고객 그리고 손님들에게를 제외하고는 어떤 도덕적 의무감도 거의 갖지 않는다.
- 손님을 환대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으며 주인-손님 관계라는 특별한 유대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여성의 취약성, 성적인 욕망 그리고 자신의 성에 대한 수치감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여야 한다(그 결과 여성은 흔히 베일을 쓰거나, 격리될 것이 요구된다).
- 여성의 성적 규범을 위반하면 — 혹은 위반을 했다는 비난을 받기만 해도- 특히 친족 집단이 보복에 실패했을 때 그 아버지, 형제, 아들, 남편까지 모두 집단적으로 불명예를 지게된다.

- 불명예를 진 남자는 수치를 걸어져야 하며 소문과 조롱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된다.
- 남자들이 혼전 혹은 혼외정사를 갖는 것은 허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혼히 여자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망의 대상이 되며, 때로는 다른 남자의 여자를 유혹함으로써 다른 남자에게 불명예를 입히는 것이 승인되기 도 한다.

이러한 문화 복합체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다. 하지만 지중해, 중동, 중앙 아시아, 동아프리카, 혹은 라틴 아메리카의 천주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 문화에만 명예의 문화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남부의 백인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있어 왔다고 한다(McWhiney, 1988; Nisbett, 1993; Nisbett and Cohen, 1996). 미국 남부의 문화는 위에서 기술한 특성들 중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점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Nisbett와 Cohen(1996)은 미국 남부에서 북부보다 폭력이 행사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를 남부가 가지고 있는 명예의 문화로 설명한다. 남부의 백인 남성들이 살해되는 비율은 북부의 백인 남성들이 살해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말다툼에 관련된 살인사건에서만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나타날 뿐이다. 남부인들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북부인에 비하여 더 폭력적인 해결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폭력이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나 모욕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될 때는 북부인에 비하여 폭력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Cohen과 그의 동료들의 한 실험에서(1996) 실험동조자에 의해 떠밀리고 욕을 들었을 때 남부인들은 북부인들에 비하여 더 화를 많이 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남부인들은 그들에게 기술된 또 하나의 “모욕” 상황을 들었을 때 폭력적인 생각을 더 많이 표현하였으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성 수준이 높아졌다. 다른 현장 연구에서(Cohen and Nisbett, 1997) 연구자들은 남부와 북부에 커다란 체인 망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이력서를 보냈는데, 이 이력서에는 그 사람이 자신을 크게 모욕한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음이 적혀 있었다. 남부 고용주들은 북부의 고용주들에 비하여 더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동정을 표하며, 이것을 정식 지원으로 기꺼이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다. 남부의 사회는 아직까지도 명예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서 폭력에 대하여 다른 지역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Nisbett,

1993). 미시시피의 언론인인 Hodding Carter는 1930년대에 자신이 살인사건의 배심원이었던 경험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유소 옆에 살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 주유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남자를 조롱하는 농담을 하였는데, 어느 날 아침 그 남자는 자신의 권총을 꺼내 그 사람들을 향해 쏘아서 한 사람이 불구가 되고 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며 무고한 고객이 한사람 살해되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배심원은 Carter 뿐이었고, 나머지 11명의 배심원들은 “그는 유죄가 아니다. 그가 만일 그 사람들을 쏘지 않았다면 그는 남자도 아니다”라고 하며 무죄쪽으로 결론을 내렸다(Carter, 1950).

그렇다면 남부인들은 왜 이렇게 모욕에 민감한가? Nisbett와 Cohen(1996)은 그 원인을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요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설명한다. 북부지방에는 주로 농부들이 정착을 한 반면 남부 지방에는 주로 유목민들이 정착을 하였다. 농부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단합을 해야했고 가장 효율적인 자세는 조용하고 협동적인 것이었다. 대조적으로 남부에 정착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웃간에 협동을 해야할 필요가 없었으며 자신의 가축들을 도둑맞지 않으려면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자세를 취해야 했다. 모욕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개인이 자신을 방어하기에 너무 약하다는 의미가 된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힘, 거칠음 그리고 개인적인 존엄성에 대한 평판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행동이었다. 문화의 근원을 목축과 같은 경제적인 유래로 설명하는 것은 남부에서 아직까지도 목축을 하는 지역에서 가장 폭력의 발생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지가 된다(Nisbett, 1993).

목축을 경제적인 생활 수단으로 삼는 남부인들이 이제 거의 없어진 오늘날까지, 미국 남부에서는 명예의 문화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는 문화와 사람들의 정신이 서로를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남부의 백인 소년들은 어릴적부터 자신의 명예를 언제나 생각해야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배운다(Fischer, 1989). 이들은 자신의 명예에 도전한 사람에게 전혀 망설임 없이 야만적인 폭력을 휘둘러 자신의 명예를 지키도록 훈련을 받게 된다. 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매일의 상호 작용에서 명예가 중요함을 배우게 되는 사회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명예의 문화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문화가 사회 전체의 삶을 더 좌우할 수 있도록 문화를 강화시키게 된다. 문화가 명예와 남성성을 계속 중요시하고, 개인들이 모욕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으면 남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이

러한 문화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Fiske *et al.*, in press).

### 3) 가난과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 구조적, 문화적 접근

미국 남부의 명예의 문화에서처럼 한 국가 안의 하위 집단간에도 서로 다른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하위 집단의 문화에 의해 그 집단 구성원의 자기 개념이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 하위 집단의 문화는 그 집단이 가진 사회 구조적인 특성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의 대표적인 연구가 사회학자인 Wilson(1996)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난을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지 않고 사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설명을 한다. 미국 대도시 지역의 계토에 사는 사람들 중 8명에 7은 소수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흑인들인데, 이 계토 지역에서는 합법적인 고용의 기회가 아주 적고(이웃지역이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기 때문에 상가나 가게와 같은 소규모의 사업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직업관련 정보망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학교도 아주 열악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제한들이 실업과 가난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상태를 계속 경험하다보면 결국에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제로의 연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삶을 관장하는 주된 힘이라는 기대도 없어진다. 일이 성인 생활의 중심적인 경험이 된다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는 일에 대한 애착을 잃어버린다. 모든 이러한 환경이 그 안의 거주자들로 하여금 비합법적인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더 구체적으로 Wilson(1996)은 계속되는 직장의 부재는 계토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환경에 적응하게끔 하는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계토관련 행동들을 발전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계토관련 행동들이란 나태하고, 실직상태에 있으면서 마약판매를 하고 매춘을 하거나 사회복지기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 등이다. 인근 지역에서 마약판매가 성행하게 되면 계토 주변환경이 매우 위험해지고 주민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 이웃과의 교류가 없어지고 지역 공동체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면 그 이전에 서로 연결되고 통합된 사회라는 인식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지역 공동체 전체가 서로 접촉하고 어린이들의 행동을 함께 관찰 통제해 주던 기능이 없어지고 사회적 네트워크

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계통관련 문화적 특성과 행동의 생성에 공헌을 하게 된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라짐에 따라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없어지고 주변과 거리에서 팽배해 있는 비합법적인 행동들만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들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매일 보는 사람들이 범죄자일 경우 이것이 규범이 되어버리고 쉽게 내면화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계통관련 행동이나 문화가 주어진 상황과 여전히 하에서 가장 적응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화는 자기의 일부분이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의 결핍을 가져온다. 자기 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 계속되는 불안정한 직업과 낮은 수입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낮추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신념의 문화적인 전달로서 문화와 자기가 서로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제약이 미치는 영향을 잘 기술하였는데, 이는 이제까지의 사회 심리학에서 주류를 이루어온 내부주의(internalism)와 반대되는 것이다. 내부주의란 모든 사회적인 행동을 특성, 인지적 도식, 속성과 같은 내적 상태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내적 상태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과 현상도 많지만 내부주의에 치중하다보면 모든 설명이 내적 상태로만 편향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없애면 된다는 식의 해법이 제안되는 것이다. 또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지지 않은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로, 교육환경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적인 행동이 아니라 구조적 행동(structural behavior)이다.

Steele(in press)은 미국내 흑인 학생들이 학업성취 면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현상을 구조적, 문화적 원인과 고정관념의 역할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학교에서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가 되어야 한다. 즉, 학교 성취가 자기 정의의 일부분이 되어야하며 자기 평가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수학을 못하는 것과 흑인들이 일반적으로 학업 면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원인을 알아보려면, 이 집단들의 어떤 경험이 이들을 학교에서의 성취로부터 유리시키는가(disidentification)를 이해해야 한다.

여성들을 수학 영역으로부터 그리고 흑인들을 학업성취의 영역으로부터 유리시키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들 수 있다. Steele은 사회 경제적 불이익, 고립적인 사회정책, 제한적인 문화적 지향성 그리고 선생님들의 낮은 기

대, 수학이 비여성적으로 보이게 하는 사회적인 성역할에 대한 정의 등의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은 여성과 흑인에게 문화적 위협 그리고 구조적 위협을 제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위협들은 그 영역들에서 여성이나 흑인들이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영역과의 유리를 초래하게 된다. 자신을 어떤 영역으로부터 유리를 시키게 되면 그 영역에서 어떤 수행을 보이던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평가나 정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그 영역들로부터 유리되지 않은 사람들도 상황적인 요인에서 오는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에 직면하게 된다. 고정관념 위협이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부정적인(예를 들어 흑인은 백인보다 지능이 낮다는) 고정관념이 있을 때,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적용되는 상황에 임하게 되면(예를 들어 흑인 학생이 지능진단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의 수준이 너무 어려워 잘 풀 수 없을 때) 자신이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들어맞을까 봐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수행이 저하될 수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것인데, 고정관념 위협이 누적되면 사람들은 적응적인 행동으로서 그 영역으로부터 자신을 유리시키게 될 수 있다. 유리현상은 그 영역이 학교 교육과 같은 중요한 것일 때에도 일어난다.

*Steele(in press)*은 고정관념 위협에 의하여 두 집단의 수행이 실제로 저해됨을 보이기 위하여 일련의 실험을 하였다. 여성의 수학영역에서의 수행을 보기 위하여 남, 녀 대학생들 중 수학을 잘하고 자신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로 보고 있으며 수학이 자신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주 어려운 수학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검사는 그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낄 만큼 그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었다. 이때 여성들이 고정관념 위협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나쁜 수행이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들어맞는 것으로 평가될 불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불안은 여성들의 수행을 똑같은 기술을 가진 남성들의 수행보다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수행의 저하가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요하는 문제들에서 여성들의 수학능력이 유전적으로 남성들보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험 절차에 조작을 가하였다. 연구자들은 한 집단의 여성들에게는 그 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차가 나타난다는 정보를 주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부각시켰다. 다른 조건에서는 그 검사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정보를 주었다. 놀랍게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낮은 수

행을 보인 것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부각시켰을 때뿐이고,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조건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수행을 나타내었다.

흑인과 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아주 어려운 표준화된 언어검사를 실시하는데, 일단의 학생들에게는 이 검사가 지능을 진단해주는 검사라고 이야기하고(흑인의 지능이 백인에 비하여 열등하다는 고정관념을 부각)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 검사가 지능과는 상관없는 실험실 문제해결 과제라고(따라서 고정관념과 무관해짐) 이야기하였다. 흑인 학생들은 지능 진단 검사 조건에서만 백인 학생들보다 열등한 수행을 보였다. 이 연구들이 시사해 주는 바는 흑인 학생들이 자신을 학교로부터의 유리시키는 것이 사회가 흑인 학생들의 능력이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흑인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능력에 대하여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어떤 집단이라도 학교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이게 될 것이다. Ogbu(1986)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일본의 바라쿠족, 인도의 하리잔들, 이스라엘의 동방 유태인들과 같은 세습 계급적인 소수민족들은 일률적으로 미국에서의 흑인들처럼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비하여 지능지수가 15정도 낮으며, 퇴학율이 높고, 문제 행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과 일상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학업성취와 지능 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사받을 수 있다.

## 6. 결론

본 논문에서 논의한 연구들은 문화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이 의도한 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실험적 전통과 방법론적 엄격성, 보편성의 추구를 지향해 온 사회 심리학에서도 “의미”的 탐색이 과학적 방법론 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라는 점이다. 문화적 접근을 하는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인간의 심리적 과정이나 기능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문화권 내에서 개발된 실험 절차를 다른 문화권에서 그대로 실시하려고 할 때 그러한 절차가 그 문화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면, 방법론의 엄격성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방법론의 엄격성, 양적인 측정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밝히려면 문화적, 사회 구조적, 사회 역사적인 맥락과 그 맥락 내에서의 행동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예시하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 남부에서의 폭력성과 북부에서의 폭력성은 그 의미가 다를 것이다. 남부에서의 폭력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성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강도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남부와 북부 간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말다툼과 관련된 폭력의 경우 남부가 북부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소수민족들 특히 흑인들이 학업성취 면에서 열등하게 나타나는 사실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이나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여러 문화들에서 심리적 과정들이 가지는 의미, 인간의 정신이 제도와 관습과 문화에 의하여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관습과 문화가 인간의 정신에 의하여 재생되고 유지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연구하려면,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인류학자, 사회학자, 언어학자, 심리학자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때 상당한 진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심리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Fiske, Kitayama, Markus and Nisbett, 1996). 첫째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의미들이나 관습들, 그리고 이들과 연관되어있는 심리적인 구조나 과정들을 알아보자는 것이다. 둘째로, 문화적으로 형성된 사회성과 정신의 다양성 기저에 깔려있는 체계적인 원칙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로, 문화가 어떻게 심리적 과정들을 창출하고 지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심리적인 경향성들이 반대로 문화적 체계를 지지하고 재생하고 때로는 변화시키는지를 밝힘으로써 정신과 문화가 서로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과정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며 어떤 절대적인 현실(reality)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이고,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른 문화적인 현실들, 우리의 것과 다름없이 타당하고 의미있는 존재양식들을 바라보고 문화적인 공감(empathy)을 갖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심리학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과정이다(Shweder, 1995). 다른 문화나 사람들을 통해 봄으로써 자신의 의식을 보다 잘 알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신념, 욕구, 관습들을 그들의 현실에서 이해함으로써 바로 알자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Bruner(1990)가 말하는 열린 마음(open-mindedness)이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

참고문헌

---

- Asch, S. (1952),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ldwin, J.M. (1897), *Social and ethical interpretations in mental development: A case study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and London: Macmillan.
- \_\_\_\_\_. (1911), *The individual and society*, Boston: Boston Press.
- Berry, J.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Halsted.
- \_\_\_\_\_. (1980), Ecological analyses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In L. Sechrist (Ed.), *New directions in methodology of behavioral science* 1, 47~57.
- \_\_\_\_\_. (1983), Textured contexts: Systems and situ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In S.H. Irvine & J.W. Berry (Eds.), *Human assessment and cultural factors*, pp. 117~125, New York: Plenum.
- Berry, J.W., Poortinga, Y.H., Segall, M.H. and Dasen, P.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nd, M.H. (1988), Finding universal dimensions of individual variation in multicultural studies of values: The Rokeach and Chinese value surve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009~1015.
- Bond, M.H. and Cheung, T.S. (1983), College students' spontaneous self-concept: The effect of culture among respondents in Hong Kong,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 153~171.
- Bond, M.H., & Smith, P.B. (1996), Cross-cultural soc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7, 205~235.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D.T. and Naroll, R. (1972), The mutual methodological relevance of anthropology and psychology, In F.L. Hsu (Ed.), *Psychological anthropology*, pp. 435~468, Cambridge: Schenkman Publishing Co.
- Carter, H. (1950), *Southern legacy*,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Cohen, D. and Nisbett, R.E. (1997), Field experiments examining the culture of honor: The role of institutions in perpetuating norms about viol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1, 1188~1199.
- Cohen, D., Nisbett, R. E., Bowdle, B. and Schwarz, N. (1996), Insult, aggression, and the Southern culture of honor: An experimental ethn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 945~960.
- Cole, M. (1991), Conclusion, In L.B. Resnick, J.M. Levine and S.D. Teasley (Eds.), *Perspectives on socially shared cognition*, pp. 398~41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_\_\_\_\_, (1995), The supra-individual envelope of development: Activity and practice, situation and context, In J.J. Goodnow, P.J. Miller and F. Kessell (Eds.), *Cultural practices as contexts for development: New directions to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Cousins, S.D. (1989), Culture and self-percep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24~131.
- Eckensberger, L.H. (1979), A metamethodological evaluation of psychological theories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L.H. Eckensberger, W.J. Lonner and Y. H. Poortinga (Eds.), *Cross-cultural contribution to psychology*, pp. 255~275, Amsterdam: Swets & Zeitlinger.
- Fischer, D.H. (1989), *Albion's seed: Four British folkways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iske, A.P., Kitayama, S., Markus, H.R. and Nisbett, D. (in press),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and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Geertz, C. (1973), The growth of culture and the evolution of mind, In C.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83),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93), Refiguring self and psychology, Aldershot, Hants, Brookfield, VT: Dartmouth.
- Gergen, K.J. and Davis, K.E. (Eds.) (1985), *Social constructionism: Theme and varia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Gilbert, D.T. and Malone, P.S. (1995), The correspondence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17, 21~38.
- Greenfield, P. and Cocking, R. (1994),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reenfield, P.M. (in press), Culture as process, in J.W. Berry, Y.H. Poortinga and J. Pandey (Eds.), *Theory and method vol. 1,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 Greenfield, P.M., Brannon, C. and Lohr, D. (1994), Two-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movement through three-dimensional space: The role of video game expertis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5, 87~103.
- Greenfield, P.M., Raeff, C. and Quiroz, B. (in press), Cross-cultural conflict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child, In S. Harkness, C. Raeaff and C. Super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Greenwald, A.G.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 Psychologist 35, 603~618.
- Greertz, C. (1984), From the native's point of view: On the nature of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In R.A. Shweder and R.A. LeVine (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re, R. and Krausz, M. (1996), *Varieties of relativism*, Cambridge, MA; Blackwell.
- Heine, S.J. and Lehman, D.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_\_\_\_\_, (in press),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Herzog, A.R., Franks, Markus, H. R. and Holmberg (1995), *The American self in its sociocultural variations*, unpublished manuscripts.
- Jahoda, G. (1990), Our forgotten ancestors, In J.J. Berma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Cultural perspectives* 37, pp. 1~49,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_\_\_\_\_, (1993). *Crossroads between culture and mind: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theories of human na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ones, E.E. (1979), The rocky road from acts to dispositions, *American Psychologist* 34, 107~117.
- Kitayama, S. and Karasawa, M. (1995), Self: A cultur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113~165.
- Kitayama, S. and Markus, H.R. (Eds.) (1994),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tayama, S., Markus, H. R. and Matsumoto, H. (in press),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depreciation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Kitayama, S., Takagi, H. and Matsumoto, H. (in press), Cultural psychology of Japanese self: Causal attribution of success and failure, *Japanese Psychological Review*.
- Le Bon, G. (1894), *Lois psychologique de l' evolution des peuples*, Paris: Alcan.
- \_\_\_\_\_, (1895), *Psychologie des foules*, Paris: Alcan. Translated (1952) as *The crowd*, London: E. Benn.
- Lepper, M.R. and Greene, D. (1975), Turning play into work: Effects of adult surveillance and extrinsic rewards on children's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79~486.
- LeVine, R.A. and Shweder, R.A. (1995), Culture, psychic pluralism, and the nature-nurture problem, In F.S. Kessel, & R.A. Shweder (Chairs), *Towards a cultural psychology of development: I. Theoretical themes*, Symposium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 Markus, H.R. and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_\_\_\_\_, (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and G.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18~48, New York: Springer-Verlag.
- Markus, H.R., Mullally, P.R. and Kitayama, S. (in press), Collective self-schemas: The sociocultural grounding of the personal, In U. Neisser and Joping (Eds.), *The conceptual self in context*.
- McDougall, W. (1908),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London: Methuen.
- McWhiney, G. (1988), *Cracker culture: Celtic ways in the old South*,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Mead, G.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J.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_\_\_\_\_, (1994a), Cultural diversity in the morality of caring: Individually oriented versus duty-based interpersonal moral codes, *Cross-Cultural research* 28, 3~39.
- \_\_\_\_\_, (1994b), Cultural diversity in the morality of caring: Individually oriented versus duty-based interpersonal moral codes, *Cross-Cultural Research* 28, 3~39.
- \_\_\_\_\_, (in press), Cultural conceptions of duty: Implications for motivation and morality, In J. Schumaker, D. Munro and S. Carr (Eds.), *Motivation and culture*, New Jersey: Routledge.
- Morris, M.W. (1993),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understandings of physical and social caus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Morris, M.W. and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 Nisbett, R.E. (1993), Violence and U.S. regional culture, *American Psychologist* 48, 441~448.
- Nisbett, R.E. and Cohen, D. (1996), Culture of honor: The psychology of violence in the South, Boulder, CO: Westview Press.
- Ogbu, (1986), Structural constraints in school desegregation, In J. Prager, D. Longshore and M. Seeman (Eds.), *School desegregation research: New directions in situational analysis*, New York: Plenum Press.
- Pepitone, A. and Triandis, H.C. (1987), On the universality of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471~499.
- Roland, A. (1988), *In search of self in India and Japan: Toward a cross-cultural psycholo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er, N.R. (1992), *Japanese sense of self*,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pp. 174~220, New York: Academic.
- Schneider, D.M. (1984), *A critique of the study of kinship*,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ethi, S. and Lepper, M.R. (1997), *Rethinking the role of choice in intrinsic motivation: A cultural perspective*,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 Shweder, R.A. (1990), Cultural psychology: what is it? In J.W. Stigler, R.A., Shweder and G. Herdt (Eds.),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Quata and qualia: What is the object of "ethnographic" method? In R. Jessor, A. Colgy and R. Shweder (Eds.), *Ethnography and human development: Meaning and context in social inqui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weder, R. A. and Bourne, L. (1984),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R.A. Shweder and R.A. LeVine (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pp. 158~19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Mahapatra, M. and Miller, J.G. (1990),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J.W. Stigler, R.A. Shweder and G. Herdt (Eds.),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pp. 130~20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lomon, S., Greenberg, J. and Pyszczynski, T. (1992), A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ocial behavior: The psychological foundation of self-esteem and cultural worldview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 Spiro, M.E. (1982), *Oedipus in the Trobria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ele, C. (in press), A threat in the air: How stereotypes shape intellectual identities, *American Psychologist*.
- Stigler, J.W., Shweder, R.A. and Herdt, G. (1990),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kata, T. (1987), Self-deprecative tendencies in self evaluation through social comparison,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27~36.
- Taylor, S.E. and Brown, J.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riandis, H.C., McCusker, C. and Hui, C.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06~1020.
- Wertsch, J.V. (1995), Introduction, In J.V. Wertsch, P. del Rio and A. Alvarez (Eds.), *Sociocultural studies of mi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rtsch, J.V., del Rio, P. and Alvarez, A. (1995), Introduction, In J.V. Wertsch, P. del Rio and A. Alvarez (Eds.), *Sociocultural studies of mi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 M. (1963), The logic of historical narration, In S. Hook (Ed.), *Philosophy and history: A symposium*, pp. 3~31,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Wilson, W.J. (1996), *When work disappears: The world of the new urban poor*, New York: Knopf.
- Wundt, W. (1916), *Elements of folk psychology: Outlines of a psychological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mankind*, London: George Allen & Unwin; New York: Macmillan.

abstract

---

## Cultural Psychology: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Jasook Koo\*

Culture has played a relatively peripheral role in psychological theory, which is changing now. Social Psychologists taking cultural approaches emphasize the essential role of culture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behavior. The most important thesis in cultural psychology is that culture and psyche make each other up. It aims at understanding how cultural practices and meanings shape psychological processes, which in turn generate and transform these cultural practices and meaning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how (1) that the quest for meaning (of social phenomena and behaviors) is as important as assuring scientific methodology in social psychology, and (2)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ertain social phenomena and individual behavior,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cultural, socio-structural, and socio-historical contexts. Examples of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with cultural perspectives were presented and reviewed. The results of the studies reviewed indicate (1) that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have different models of the self, and the nature of individual experiences including emotion, cognition, and motivation changes according to the construals of the self, (2) that Southern violence in the U. S. can be explained by the culture of honor characteristic of particular economic circumstances,

---

\* Research Associate of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Social Psychology

Major Publication: "Politeness: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Koo, J., Ambady, N., Lee, F., and Rosenthal, R. (1996), "More than Words: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Politeness in Two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5

tel: 0331-261-8481

e-mail: suinhan@chollian.net

including the herding society of the early South, and (3) that social phenomena such as poverty and school underachievement can be culturally and socio-structurally explained.